濟大論文集(人文·社會), 35. 19-36, 1992
Cheju Univ. Jour. (Humanities · Social Sci.), 35, 19-36, 1992

1950년대 후반기의 문학

김 영 화*

목 차

Ⅰ. 서 론
Ⅱ. 문예지의 발간
Ⅲ. 시의 양상
1. 분단상황의 시
2. 풍자와 언어실험
3. 순수시
Ⅳ. 소설의 세계
1. 장용학과 손창섭
2. 정한숙과 이범선
3. 선우휘
4. 박연희와 유주현
5. 20대의 신인들
Ⅴ. 신인들의 비평
Ⅵ. 결 론

Ⅰ. 서 론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부산으로 피난갔던 정부는 8월15일 서울로 환도했다. 문인들도 서울로 속속 모여 들었다. 그들은 전쟁과 피난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작품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54년 7월17일 《학·예술원》의 개원을 했다. 이를 계기로 문화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문단도 차츰차츰 문학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에 들어갔다.

1955년 1월에는 신춘문예가 부활되어 역량있는 신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현대문학』 등 문예지의 창간을 계기로 문단은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신춘문예나 문예잡지의 추천을 통해서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이 전후의 문학을 주도했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기의 문학은 전반기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었다.

1950년대 후반기의 문학은 전후문학[1]적 성격이 강하다. 전쟁과 피난생활을 겪으면서 문인들은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Dept. of Korean Languag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세계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후문학'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문학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경우는 6·25전쟁 후의 문학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쟁의 비참성과 가치관의 붕괴, 나아가 극한상황 속의 인간의 모습을 아프게 체험했다. 이렇게 전쟁기간에 체험했던 일들이 문학의 소재나 주제가 되었고, 문인들은 이런 소재와 주제를 붙들고 그것을 형상화하기에 노력했다. 특히 50년대에 등단한 신인들이 그것에 앞장 섰다.

필자는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을 문학사의 관점에서 살핀 일이 있다. (제대논문집 34집, 1992.6) 이 글은 그 논문에 이어 50년대 후반기(1955.1~1960.4)의 문학을 문학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토대로 그것을 종합·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문예지의 발간

1954년 7월 《학·예술원》이 개원되는 것을 계기로 문화계는 전쟁과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문단도 마찬가지다. 문인들은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을 쓰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작품의 발표 무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문예지를 창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1955년 1월 「현대문학」 창간을 시작으로 6월에는 중단되었던 「문학예술」이 속간을 보았으며 1956년 6월에는 「자유문학」이 창간되었다. 이미 창간된(1953.3) 종합지인 「사상계」와 더불어 이 잡지들은 작품의 발표 무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신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잡지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조연현, 김광섭, 오영진 등은 해방 후 우파 진영에 속해 있었던 문인들이었다. 따라서 잡지의 성격도 우파적, 보수적 경향이 있었다. 이런 성격은 50년대 한국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현대문학」은 대표적인 문예지이고 이 잡지의 창간 이념은 1966년 1월에 나온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나올 때까지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현대문학」의 주간이었던 조연현은 이 잡지의 편집노선을 (1)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단의 총체적 표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 (2)문학상의 경향이나 특정한 유파를 초월한 정통적인 위치를 엄수한다는 것 (3)고전에 대한 정당한 계승과 새로운 세계문학의 정당한 흡수 (4)가치평가에 대한 엄정한 태도 (5)역량있는 신인의 양성에 있다고 했다.[2]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2)·(4)·(5)항이다. (2)항의 '정통적인 위치를 엄수'하겠다는 것은 해방 후 좌·우논쟁에서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조연현이 정통적인 문학을 순수문학에서 찾았던 점을 상기한다면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4)항의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문적인 비평가들의 글을 실어서 비평의 전문화, 나아가서 비평과 학문의 연결을 겨냥한 것이며 (5)항의 신인 등용의 엄격성은 한·두 편 작품을 발표하여 문인행세를 하는 수준 낮은 문인들이 있었던 이전과 비교할 때 의미있는 항목이다. 요컨대 순수문학을 표방하면서 수준 높은 문학의 생산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2) 조연현, "현대문학",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 20년」(정음사, 1966.2) p.179.

이런 편집 방침은 1981년 조연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어 엄격한 신인 심사, 작품 평가의 엄격성은 문단의 정화에도 기여했다. 다만 그 문예잡지가 은연중 표방한 순수문학의 옹호는 보수적이요, 우파적이며 편협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잡지가 1950년대 문학에 기여한 점은 결코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문학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한 단계 높게 끌어 올리는 일을 했다.

신춘문예의 부활도 1955년에 이루어졌다. 태평양 전쟁, 해방 후의 혼란, 6·25전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신춘문예가 부활되어 문학 지망생들의 의욕을 북돋우었다. 그리고, 정실이 배제된 심사에 의해 작품을 골라 한국문학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Ⅲ. 시의 양상

1950년대 후반기의 시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쟁터와 휴전선의 정황을 그대로 표현한 분단상황의 시, 둘째는 전후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한 시, 셋째는 한국시의 주류를 이루어 온 순수시 계열이 그것이다.

1. 분단상황의 시

1950년대의 시에 그 시대의 아픔을 분단상황과 관련하여 표현한 시에 박봉우(1934~)의 「휴전선」(1956)과 민재식(1932~)의 「속죄양」(1956)등이 있다.

> 山과 山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 같은 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 저어 서로 옹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風土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
> 모든 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休息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 뿐인가(후략)
>
> —박봉우의 「휴전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불신하고, 서로 옹시하는 쌀쌀한 풍경과 언젠가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50년대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시 가운데 하나다.

> 이 요대 달이 밝으면
> 25야아드씩 떨어져 전진하라.

2·7인치 로켓포탄이며 3·5인치 로켓포탄이며,
60미리 박격포탄, 80미리 박격포탄,
이름도 모를 포탄들의 파편과 불발탄,
뒤엎힌 탄착점과 이지러진 철조망.

끄슬린 무덤을 돌아
화약냄새 자욱한 골짜기를 뛰어
전우가 디딘 발자욱을 되밟고
신호탄이 넘어간 비탈을 탄다.

달이 얹힌 철모마다 인광이 탄다.
묽은 쏘루채 두골 안 뇌수가 불이 붙어
지지지 인광으로 탄다.
오리온과 마주친 눈망울에 인광이 탄다. (후략)

—민재식의 「속죄양 · Ⅱ」

격전이 벌어지고 포탄이 날던 전쟁터의 살벌한 광경이 그대로 묘사되었다. 전쟁의 원인 같은 것을 따지기에 앞서 총을 들고, 로켓포와 박격포를 끌면서 전투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정경이 드러난다. 휴전선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시다. 전쟁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는 시들이다. 전쟁과 50년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시들이다.

2. 풍자와 언어 실험

김춘수와 더불어 새로운 시를 모색하고 실험한 시인이 송 욱(1925~1980)이다. 그의 「何如之鄕」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다.

孤獨이 梅毒처럼
꼬여박힌 8字면
청계천변 酌婦를
한아름 안아보듯
痴情같은 政治가
常識이 病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빚과 살붙이와,
現金이 實現하는 現實앞에서
다다른 낭떠러지!

—송 욱의 「何如之鄕 · 5」

이 시는 1950년대 사회를 비판 · 풍자하고 있다. 전쟁을 거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도덕적 타락

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계천변 작부'와 '매독'으로 상징되는 사회, 독재와 부조리가 얽혀 있는 정치, 배금주의에 물들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대의 순수시 계열의 시나 김춘수의 세계와 다르다. 적어도 송 욱은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 내재한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다.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시도하고 있다. 비시적 일상어를 대담하게 시 속에 끌어들이고 있는 점, 이 시의 연작에서 '念念을 念珠처럼 묻어 놓아라'에서 볼 수 있는 유사음을 중첩시키는 말장난, '科學이 學科인 양하여' 또는 '痴情같은 政治'등은 서양시에서 볼 수 있는 패로디를 활용하고 있다. 그는 보드래르, 엘리어트, 로렌스의 문학을 읽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시는 서양시의 영양 아래 씌어진 시이고, 서양시의 방법을 이 땅에 심어 놓으려고 했다. 그만큼 전통시와는 대조된다. 그러나 이런 시도와 실험이 송 욱에서 끝나 후진들이 계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폭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3. 순수시

1955년 등단한 박재삼(1933~)은 고전적 정감을 잘 살린 시를 쓴 시인이다.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물 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보것네.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

한국의 전통시가에서 볼 수 있는 哀·怨·恨이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시는 전통적 서정시를 계승하고 있다. 박재삼의 시는 우리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서와 가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의 시를 통해서 한국시의 주류를 이루는 전통시·순수시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시는 김소월·김영랑·서정주 그리고 청록파의 시세계와 닿아 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세계에 가까이 있는 시인이 50년대 전반에 나와 후반기에 본격적인 활동을 한 이형기(1931~)다.

적막강산에 비 내린다.
먼 산 변두리를 슬며시 돌아서
저문 창가에 조용히 머물 때
저버린 일상
으늑한 평면에
가늘고 차운 것이 비처럼 내린다. (중략)
차라리 사람없는 곳에 살아서
청명과 불안
기대와 허무
천지에 자욱히 가랑비가 내린다.
아, 적막강산에 살고 싶어라

—이형기의 「비」에서

이 시에는 무엇보다도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그런 외로움을 과장없이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어 한국시의 세계를 넓히고 있다.

이 계열의 시를 쓴 시인으로 박성룡, 박용래, 김남조 등이 있다.

Ⅳ. 소설의 세계

휴전으로부터 1960년 4·19가 일어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문인들은 전쟁으로 입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의 붕괴와 가치관의 변모,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자유당 정권은 독재로 치달았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경제적 궁핍은 지속되었다. 게다가 사회는 혼란과 불신이 팽배했다.

이런 배경 아래 소설계는 신인들이 문단을 주도했다. 그들이 내놓은 문학은 전전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흔히 이 시대의 문학을 '전후문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전후문학적 특징은 특히 소설에서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문학은 몇 개의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1)인간의 본질과 실존적 의미에 천착한 장용학과 손창섭, 2)전통의 붕괴를 아쉽게 생각하는 정한숙과 이범선, 3)역사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선우휘, 4)매카시즘과 상류층의 삶을 고발한 박연희와 유주현, 5)전쟁으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아프게 그려낸 오상원·송병수·하근찬·서기원·한말숙·이호철 등 20대의 신인들의 세계는 전후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1. 장용학과 손창섭

장용학(1921~)은 1950년 1월 「미련소묘」가 『문예』지에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가운데서 「요한시집」(1955), 「현대의 야」(1960) 등은 그의 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의 소설은 문장에 있어서나 소설의 방법에 있어서나 종래의 소설과 크게 다르다. 한자의 과도한 사용, 관념성, 애매모호한 표현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리고 독특한 인간상의 제시, 실존과 자유의 문제, 근친상간 등 종래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제시했다.

「요한시집」은 6·25 전쟁에 참가했던 병사의 이야기이면서도 전쟁과는 관련이 적은 세계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소설에 나오는 누혜는 한 살 때 호적에 오른다.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누혜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타율적인 것이다. 소학교 때에는 지각했다고 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유리창을 깨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 때 아무도 누혜를 위해 보호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 않는다. 철저한 고독을 경험한다. 그것은 공포이기도 했다. 주어진 상황이 누혜에게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다. 중학교에 가서도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생활이 계속되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대학에서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누혜는 현실을 떠나 상상의 세계에 살면서 시를 짓기를 즐긴다.

2차대전이 끝나 해방이 되었다. 희망을 가지고 '인민의 벗'이 되기 위해 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당은 누혜에게 결코 호의적이 아니었다. 전쟁(6·25)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된다. 같은 포로들끼리 두 패로 나뉘어 싸움을 벌일 때 누혜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거기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한다.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문득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한계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살하고 만다.

한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점검한 이 소설은 인간의 실존과 자유의 문제를 소설을 통해 그리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타율적인 삶에 대한 천착을 하고 있다. 6·25 전쟁마저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역사의 거대한 틀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주체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야」의 주인공 현우는 자기자신이 역사의 메커니즘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 6·25 때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 있다가 인민군에 붙잡혀 시체 처리에 동원된다.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 현우도 처형 대상으로 형장에 끌려갔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수복 후 赤治下 때의 부역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경찰에 협력하기로 하고 풀려난다. 1·4 후퇴 때 방위군으로 남하하다가 혼란중에 포로수용소에 수용된다.

환도 후 은행에 취직하면서 호적과 이름을 아예 고친다. 본적을 이북으로 하고 현우라는 이름 대신 박만동으로 고친다. 남의 집에 하숙하면서 평범한 은행원으로 지내고자 했으나 간첩으로 고

발되어 1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 사망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현우의 삶은 거의 타율적인 지배를 받는다. 역사의 메커니즘의 틀 속에 개인의 존재는 파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용학은 6·25를 민족적인 시각이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 6·25 전쟁을 이데올로기의 싸움, 동족상잔, 국제전, 대리전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는 거부한다. 6·25는 그의 문학에서 하나의 소재일 뿐 인간은 역사의 힘에 밀리는 존재, 또는 상황에 갇힌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보이고 있다. 그 점에서 그의 소설은 독특하고 전전세대의 작가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손창섭(1922~)은 1952년 5월 단편소설 「공휴일」이 「문예」지에 추천되어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비오는 날」(1953), 「혈서」(1955), 「미해결의 장」(1955), 「유실몽」(1959)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소설들은 종래의 소설들과는 판이한 세계를 보인다. 첫째는 특이한 인간상의 제시이며 둘째는 시니시즘이다.

손창섭은 오늘날의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특이한 생애에서 얻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6·25를 거치면서 더욱 깊어지고 확대되었다. 그의 소설에는 긍정적인 인간상이 거의 없다.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인간, 탐욕적이고 동물적인 인간,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서도 그것과 싸워 나가려는 의지를 상실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은 인간다움을 상실한 인간들이 벌이는 드라마요, 거기에서 나온 비극적인 유모어다. 그 유모어의 뒤에는 손창섭의 모멸에 찬 시선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모멸에 찬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데 손창섭 소설의 특이성이 있다.

전쟁과 피난생활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정상적인 시대와 사회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대로 노출된다. 거기에 노출된 인간은 인간다움을 상실한 인간이다. 손창섭의 소설은 6·25 전쟁과 피난생활을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묘사해 내어 전후문학의 한 특성을 드러낸다. 무기력한 인간,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 그것이 50년대 한국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의 인물들은 6·25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도 없고 무엇 때문에 전쟁과 피난생활을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인물도 없다. 주어진 전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피난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서로 싸우다 지쳐 쓰러진 인간군상을 제시한다. 그것이 50년대의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손창섭은 인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내세운다. 도무지 인간이 된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1955)의 주인공이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과오같이만 해석되는 것이었다. 그처럼 인간행세에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는 그는 누구 앞에서나 실없이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고백하고 있다. 인간다움, 인간의 자존심을 잃어 버렸을 때

혹은 인간의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인간은 존엄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먹고, 배설하고, 잠자는 기능만 있을 뿐 사색하는 기능이나 사물에 대한 감성적 반응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인간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손창섭 소설의 주류를 이룬다.

6·25는 한민족이 지금껏 지녀왔던 윤리관, 삶의 지표, 가치관을 송두리째 잃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많았다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한민족이 잃어 버린 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심, 윤리, 도덕적 지표 등 수없이 많다. 그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것을 절감했다. 「혈서」의 달수나 「미해결의 장」의 지상의 절망이 그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병균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병균 그 자체라고 냉소한다. 「미해결의 장」의 지상이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박테리아에 비유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성년의 남동생과 한 방에 기거하면서 성행위를 서슴지 않는 「유실몽」의 누나 부부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고 인간이하의 동물을 연상케 만든다. 그런 누나 부부의 생활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그들에게 얹혀 지내야 하는 철수도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손창섭은 6·25 전후의 한국인들의 삶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지닌 병적인 징후를 드러내어 고발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모멸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전후문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전후문학의 특징을 지닌다.

장용학, 손창섭은 전전세대의 작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제시했다. 그것은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6·25의 와중에 문단에 나섰고 그 후에 작품 활동을 했으며 구체적인 6·25를 체험했고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6·25와 동떨어져 서 있던 점을 그들 스스로 6·25를 우리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의 격류 속에 있으면서도 역사의 밖으로 뛰쳐 나가 역사를 보는 특이한 위치에서 작품을 썼다. 그것이 그들이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2. 정한숙과 이범선

정한숙(1922~)과 이범선(1920~1982)은 같은 50년대 작가인 김성한, 장용학, 손창섭과 비슷한 연배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작품세계는 좀 다르다. 김성한, 장용학 등이 서구적 지성의 요소가 있다면 정한숙과 이범선은 동양적 지성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그들의 작품세계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들 모두 30세 전후에 6·25를 체험했으면서도 6·25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김성한등이 6·25를 지적, 관념적으로 접근하는데 비해서 이들은 6·25를 정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한숙의 「고가」(1956),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1957) 등에 그것이 드러난다. 두 소설 모두 한국의 근·현대사를 개괄하고 6·25가 민족의 삶이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고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이요, 봉건적인 종가제도가 어떻게 허물어지는가를 개괄하고

6·25가 그것을 어떻게 변모시켰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전통적이요, 봉건적인 장동김씨 집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상징되는 봉건적인 세계가 지배한다. 몰락한 양반의 후예인 장동김씨 일가는 낙향하여 지방의 토호로 유가적 생활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첩을 두고, 노비를 거느리고 살면서 종가와 문중을 중히 여기는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봉건적 인물이다. 개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데도 이 인물은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한다. 따라서 개화의 물결을 타고 신지식인이 된 둘째 아들(필재의 숙부)과 갈등을 벌이게 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객사하는 비운을 맞는다. 그의 아내도 봉건적 가문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인간적인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래의 한국 여인들처럼 순종과 인내를 거듭하다 남편이 객사 후 고가의 한 구석에 있는 쌍죽정에 목을 매어 자살한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종손인 필재는 할아버지의 방식대로 재래식 교육을 받는다. 이를 지켜보던 숙부(할아버지의 둘째 아들)가 필재의 머리를 자르고 보통학교에 입학시킨다. 숙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필재는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세계보다 숙부의 세계에 끌린다. 이 사실이 할아버지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숙부는 가출하게 되고 끝내 객사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할아버지도 끝내 숨지고, 필재는 근대적 신지식인으로 성장한다.

필재는 자기보다 연하인 할아버지의 첩의 소생인 태식이를 근대적 교육을 시킨다. 집에 데리고 있는 길녀를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한다. 필재는 봉건적 세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에 살려고 한다. 그것은 시대의 변모와 더불어 근대적 교육을 받은 결과다. 첩의 소생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태식이는 반항아로 성장한다. 특히 그를 구박했던 필재의 할머니에 대한 증오는 사그러들지 않는다. 필재의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태식은 자식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상복도 입지 않고 놀음으로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필재와 태식은 근대적 교육을 받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사이이면서도 서로 반대의 입장에서 이 종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필재의 근대적 지식인으로서의 변모와 길녀에 대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이미 봉건질서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의 자식이 보통학교와 중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다가 6·25를 만났다. 지금까지의 숨을 죽이고 살아오던 태식이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종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종의 자식이 공산당을 하지 않으면 무엇하러 살겠느냐'고 내뱉으면서 그를 괴롭혔던 필재의 할머니가 거처했던 별채에 불을 지른다. 여성동맹원이 된 길녀도 고가를 떠나 태식이와 함께 인민군이 후퇴할 때 산에 오른다. 고가에는 필재의 어머니와 숨어지내는 필재밖에 남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6·25는 잔존했던 재래의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종가재도가 붕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6·25의 비극은 이데올로기보다 종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봉건적인 삶이 그 비극을 삼화시켰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사람들」은 조그마한 산촌 마을의 역사를 개괄하고 나서 6·25가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제시한 소설이다.

학마을(鶴洞)은 강원도 두메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개화의 세례도 받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신적 영토는 봉건적이고 샤마니즘의 세계로 채워져 있다.

푸른 산들이 사면을 둘러싼 가운데 있는 일곱 집이 이 마을의 전부다. 때때로 목청을 돋우어 길게 우는 낯닭의 소리를 받아, 우물가 버드나무 밑에서 애들이 부는 버들피리 소리가 아득히 영마루까지 피어 오르는 그런 마을이다.

일제 때에 와서 이장 영감의 손자인 덕이와 박훈장의 손자인 바우는 병정으로 끌려 간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 마을에 거센 물결이 밀려오는 조짐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영물이라고 신성시하는 학이 해마다 날아와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는데 이 마을 청년들이 병정으로 끌려가던 해는 학이 날아오지 않았다. 일본이 패망하던 해에 학이 다시 날아 왔고, 일본 병정에 끌려 갔던 이장네 손자 덕이와 박훈장네 손자 바우가 돌아 왔다. 다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조용히, 그리고 봉건적 질서 속에 살아간다. 해방 이듬해도 학이 날아 왔고, 다음 해에도 날아 왔다.

그 해 가을에 덕이가 장가를 갔다. 신부는 이웃에 사는 봉네다. 봉네를 두고 덕이와 바우가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봉네는 덕이와 혼인하게 된 것이다. 잔치 전날 밤 바우가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 해에도 학은 날아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의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학이 날아오지 않거나 학의 새끼가 떨어져 죽는 일은 불길한 조짐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가 일어났다. 북한 인민군이 이 마을을 거쳐 남으로 내려 갔다. 그런 어느 날 서울서 무슨 공장엘 다니다 왔노라고 바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었던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유식했다. 김일성 장군이니 인민이니 착취니 반동이니 영웅적이니 붉은기니 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곧잘 지꺼렸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제일 지식이 많다는 박훈장도 도를 말들이었다. 그리고 마을 인민위원장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인민위원장이 무얼하는 자리인지 몰랐지만 그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행세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장이 되고 또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을 쏘아 떨어 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인민군의 퇴각과 더불어 바우도 그들을 따라 북으로 갔다. 북으로 밀려 갔던 인민군이 다음 해 다시 내려오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남으로 피난을 떠났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여섯 가구 스물세 사람이던 것이 열 아홉으로 줄었다. 봉네의 남동생이 군대에 나갔고 어린애 둘은 두부 비지만 먹다가 죽었다. 덕이 아버지는 부두 노동을 하다 궤짝에 치어 죽었다.

인민군이 북으로 물러 간 후 그들은 다시 학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바우의 할아버지 시체가 발견된다. 마을은 6·25를 계기로 폐허가 되었고,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소설은 6·25의 소용돌이 가운데 좌·우로 갈라 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벌이다 마을이 붕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좌·우로 나뉘게 되는 것도 그 동기는 이데올로기보다 한 처녀를 두고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끼리의 갈등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6·25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당시의 민중들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인 하나의 예다.

이 두 소설에서 「고가」의 태식, 「학마을 사람들」의 박훈장 손자인 바우 등 돌출형 인간상이 제시되고 있다. 태식이는 첩의 자식이라는 신분적 굴욕을 보상받기 위해서 공산당에 들어가 한풀이를 하고, 바우는 친구에게 마음을 두었던 여자를 잃어 버림으로써 공산당에 들어가 개인적인 한을 푼다.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학을 쏘아 떨어 뜨리는 등 마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동체의식을 파괴한다. 이런 돌출형 인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6·25의 격동기이고 이런 돌출형 인간에 대한 고발이 이 소설들의 숨은 의도이다. 그것은 휴머니즘과 반공과도 연결되어 있다.

3. 선우휘

선우휘(1922~1986)의 「불꽃」(1957)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그 바탕 위에 행동과 참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역사에 대한 체념과 순응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행동적 의지를 강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3·1운동으로부터 해방 후 남북 분단까지 30년 동안 고현의 집안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개괄한다. 고현의 할아버지는 체념과 순응주의의 상징적 인물이다. 현의 아버지가 3·1운동에 관여했다가 희생당했을 때 이 운동에 참여한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래서 손자인 현에게는 역사와 현실에서 떨어져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것, 무엇보다도 일신의 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현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되도록 현실문제에 대해서나 역사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지내려 한다. 학생 시절, 민족의 문제, 독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나 되도록 방관자적 자세를 지킨다.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귀국해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와중에서도 그는 교사의 일에 충실할 뿐 그 일에는 초연하려 한다. 그러나 좌익들이 날 뛰고 그들의 비인간적 작태를 목격하면서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게는 3·1운동 때 행동했던 아버지의 피가 살아 있었고 해방 후 좌·우 갈등 속에서 좌익들에 의한 인민재판이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행동에 옮긴다.

이 소설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작품이다. 전후소설 가운데 비교적 반공적 색채가 강한 소설이고 연호와 같은 돌출형 인간을 고발한 소설이다. 선우휘는 전후작가 가운데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한 작가이고 「불꽃」은 그런 세계를 보여 주는 소설이다.

4. 박연희와 유주현

휴전 후에는 독재와 매카시즘적 기류가 만연했다. 민심을 잃은 정부는 독재를 강화했고 지식인들은 이에 은연중 저항하는 기류가 있었다. 부정과 부패가 번져가는 가운데 특히 상류층은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 붕괴 속에 있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박연희(1918~)의 「증인」(1955)과 유주현(1921~1982)의 「장씨일가」(1959)가 나왔다.

「증인」은 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한 개헌 파동과 매카시즘적 분위기 아래 나온 작품이다. 독재 연장을 위한 개헌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었고,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신문기자인 준은 개헌의 부당성을 지적한 기사를 썼으나 편집국장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편집국장과 싸운 뒤 권고 사직을 당한다.

실직을 하자 생활이 어려워 집에 대학생을 하숙시킨다. S대학 철학과에 다닌다는 그 학생의 문제로 준도 연행된다. 기관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과 고문끝에 공산주의자로 몰린다.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제거하는 매카시즘적 분위기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병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준은 친한 친구까지 의심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모한다.

이 작품은 정권의 타락과 그 타락한 공권력의 남용이 한 인간을 떻게 말살시키는가를 고발한 소설이다.

유주현의 「장씨일가」는 퇴역 준장인 장씨 일가의 삶을 통해 타락한 상류층의 세계를 고발하고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장정표는 38세의 대령이다. 그의 목표는 야전군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뒤에서 밀어줄 힘이 있어야 했다. 그에게는 여당 중진이요, 국회의원인 아버지 장만중 의원이 있었다. 아버지의 힘을 배경으로 진급을 위한 야심을 불태우며 돌아다니다 지뢰를 밟고 실명한다. 준장 진급과 동시에 예편되어 집에서 지낸다.

아버지인 장만중 의원은 정치적 음모를 꾸미기에 바쁘고, 간사한 그의 비서는 장정표의 아내인 경심과 간통한다. 허영심이 많은 경심은 남편의 실명과 퇴역을 계기로 남편과 멀어지고 점차 타락해 간다. 정표의 동생인 성표는 불량학생으로 가정부를 강간한다. 상류 가정인 이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1950년대의 정치와 상류층 가정을 고발·풍자하고 있다.

「증인」과 「장씨 일가」는 1950년대 정치적 부패와 독재, 그리고 매카시즘적 기류를 그려내어 1950년대 소설의 한 특징을 이룬다.

5. 20대의 신인들

오상원(1930~1985), 서기원(1930~), 한말숙(1932~), 송병수(1932~), 이호철(1932~) 등은 20대 초반에 6·25를 체험했다. 이들 가운데는 직접 군대 생활을 경험한 작가도 있다. 그만큼 6·25 전쟁을 피부로 체험했다고 보아도 좋다.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의 민감한 나이에 6·25를 체험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독특한 세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20대의 눈으로 전쟁과 피난생활을 목격했고 전후의 혼란상을 체험했다. 그런 세계가 그들의 소설과 깊은 관련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소설은 가장 전후소설다운 성격을 지닌다.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1957)은 대학을 다니던 형제가 군대에 들어갔다가 형은 불구가 되어 제대하고, 동생은 정신적 상처를 입고 제대한다. 제대 후의 그들 형제는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세대를 대표한다. 불구자가 된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형이나 불안과 방황 속에 퇴폐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동생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원인이 되어 방황하는 것이다. 후방에 있었던 젊은 여인들도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중서의 애인인 정연이는 전쟁으로 일선지대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전쟁에 갔다 온 애인으로부터 몹쓸 병에 얻어 걸린 형란이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소설은 6·25 전쟁으로 상처입은 젊은이들을 같은 젊은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형상화한 소설이다.

서기원의 「암사지도」(1956)와 「이 성숙한 밤의 포옹」(1960)에 드러난 세계도 전후 황폐해진 젊은이들의 세계다. 먹고, 잠재워 줄 곳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암사지도」에 드러난다. 20대의 윤주는 숙식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상덕과 형남 두 남자와 동거한다. 한 여자를 두 남자가 공유한 것이다. 자기와 동거하는 여자를 친구에게 제공하는 상덕이나 자기와 동거하는 남자의 친구에게 몸을 바치는 윤주나 친구의 여자를 범하는 형남이의 세계는 종래의 윤리관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에는 그들 자신의 도덕적 타락이나 비인간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전후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 성숙한 밤의 포옹」의 주인공이 애인을 만나기 위해 탈영하고서도 창녀촌에 들어가서 방황하는 것도 전쟁으로 희망과 꿈을 잃은 젊은이의 방황을 형상화한 점에서는 「암사지도」와 궤를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서기원의 문학은 전후 황폐해진 젊은이들의 세계를 그렸다는 점에서 오상원의 세계와 상통한다.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1957)는 가난한 미술학도인 여주인공이 하루의 잠자리를 위해 댄서로 일하기도 하고 남자 친구의 하숙방을 찾기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약결혼을 하는 등 전통적인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6·25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윤리의 붕괴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소설이다. 이 작품도 젊은이들의 황폐해진 내면 풍경을 그린 것이다.

송병수의 「쑈리 킴」(1957)도 전쟁 고아들이 미군부대 주변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다. 몸을 파는

여자, 미군과의 연락을 맡은 어린 소년, 그들 주변의 부랑아들, 전쟁으로 허물어진 고아들의 삭막한 생활이 이 소설에는 잘 그려져 있다.

이호철의 「파열구」(1959)도 6·25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핀 소설들과 비슷하다. 주인공 갈표는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애인인 계영이를 친구인 석호가 가로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선에서 돌아오자 이번에는 계영이를 갈표에게 떠맡기고 석호는 미국으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표의 열등의식과 갈표와 동거하면서 술집에 나가는 계영이의 황폐한 내면세계를 잘 그려낸 소설이다. 이 소설도 20대의 눈으로 당시의 젊은이의 정황을 바라보고 그들의 세계를 그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20대 초반에 6·25를 체험하고 젊은이들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작가들의 작품은 전쟁 후의 젊은이들의 세계를 같은 세대에 의해 형상화되었다는 점, 가장 전후적인 상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50년대 문학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V. 신인들의 비평

전후의 비평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첫째는 영미계통의 문학에 관심을 가진 비평가들에 의해 소개되고 실천한 형식주의 비평이고, 둘째는 싸르뜨르 중심의 실존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앙가쥬망의 비평이며, 세째는 작품에 대한 접근은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막연한 전통론에 선 비평이다.

형식주의 입장에 가까운 비평가는 송 욱(1925~1980), 김종길(1925~), 이철범(1930~), 유종호(1935~)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공이 영·미문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미국에 유행하던 비평에 관심을 갖고 그 방법을 원용해서 비평 작업을 했다. 그 가운데서 송 욱은 비평 현장보다 강단비평에 기울어져 「시학평전」(1963)을 내놓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작품을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렇게 작품을 세밀하게 읽는 일은 우리 비평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 대체로 종래에는 작품의 인상에 대한 진술이 비평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비평을 한 비평가는 이어령(1934~)이다. 그는 「현대작가의 책임」(1958)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 작가가 현사회에서 도피하려는 것은 현실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시에 작가의 구미에 당기는 것은 보고 그렇지 않는 것엔 눈을 가린다는 것도 작가의 현실도피를 의미한다. 또 목격한 것을 쓰지 않는 것도 도피다. 자기에게 직접 닥친 일이 아니라 해서 그것를 보고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도 도피다. 어떠한 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도피다. 즉 작가의 도피는 작가에게 주어진 인간 전체에 주어진 운명, '보라고 명해진' 그 운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물을 본다는 생명에의 의욕, 생명에의 의지를 포기해 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끝내 작가의 책임을 저바린 것이다.

이 진술 속에는 종래의 우리 문학이 가진 한계, 특히 순수문학 계열의 한계를 지적한 점이 있다. 전쟁과 독재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를 작품으로 내놓는 일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서양 문학에서 배운 것, 이를테면 싸르트르류의 앙가쥬망 문학의 영향일 것이다.

신진 비평가들의 작품을 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서양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찾고, 그런 전통을 배경으로 문학이 창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런 입장에 선 비평가는 정태용(1919~1971), 최일수(1924~), 김양수(1933~), 윤병로(1936~) 등이 있다.

1950년대 후반기에는 전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젊은 비평가들이 등장하여 활동했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방법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 방법론이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서양의 방법론의 수용, 또는 변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창성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오히려 당대에 발표한 작품평, 그리고 작가론 등에서 더 소득이 있었다. 송 욱의 「한용운론」, 유종호의 「손창섭론」·「황순원론」, 이어령의 김성한, 손창섭, 장용학의 작품평 등은 그때 나온 두드러진 예가 될 것이다.

Ⅵ. 결 론

1950년대 후반기의 문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전후의 상황과 깊이 관련된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6·25 전쟁 후의 특수한 사회와 현실을 배경으로 문인들은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찾아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의 문학을 '전후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2) 이 시기의 문학을 주도한 사람들은 신인들이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전반기에 문단에 등단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문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그들에 의해 문학이 주도되었다.

3) 식민지 시대 불가피했던 일본문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확보하거나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고 이루어진 문학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서양문학의 수용도 식민지 시대처럼 일본을 징검다리로 한 간접 수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특히 비평에서 두드러진다.

요컨대 1950년대 후반기의 문학은 문인들의 세대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의 문학이며, 전후문학적 성격이 강한 문학이다. 아울러 일본문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서양문학과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문학이기도 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현대문학은 바로 이 시기의 문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송 욱, 「시학평전」, 일조각, 1963.
유종호, 「비순수의 선인」, 신구문화사, 1963.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64.
한구문인협회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66.
천이두, 「한국현대단편소설론」, 형설출판사, 1969.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일지사, 1983.
정한모 · 김재홍편,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전광용 · 신동욱, 현대문학사,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86.
28인공동집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90.
이재선, 「한국현대단편소설사」, 민음사, 1991.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현대한국문학전집1~17」 신구문화사, 1967.

Summary

Literatur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Young-Hwa Kim

This paper studies Korean literatur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from January 1955 through April 1960) from the viewpoin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This period, which is called the postwar age covers a stage of stability, from 1955 through Aplil 19, 1960, climbing out of the turmoil of a war, by such means as armistice and the return of the Government. This period was that of a halting of a war and its aftermath, people suffering from gloom, despair, poverity, dictatorship and the breakdown of a traditional values.

The main current of this stage reflected the atmosphere of this age and of society. That is, the post-war literture was mainstream, led not by the literary men of the old generation but by those of a new generation. For exemple, novelists Kim Sung-han, Oh Young-soo, Chang Yong-hak, Son Chan-sup, Chung han-sook, Lee Byum-son, Oh Sang-won, Han Mal-sook, Ha Keun-chan and Song Byung-soo, poets, Song Wook, Min Jea-sik, Park Bong-woo, Park Jea-sam, Lee Hyung-ki and critics Song Wook, Lee O-ryung, You Chong-ho, Lee Chul-bom and Choi Il-soo were active in their work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in literary history were mainly the problems of human existence after the war, the problems of the loss of humanity and literary expression of collapse of morals and values. Critics develop their own new approaches with the bakground knowledge of existentialism and analytic criticism, free from impressionistic appreciative criticism.

The mainstream of literatur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is postwar literature.